

쇼팽의 음악과
조국애가
살아 숨쉬는 나라

폴란드 (3)



배순덕

광장 이쪽, 적색의 단단한 벽들로 이루어진 사원의 지붕 위로 불쑥 올라간 탑 중간에는 고풍스런 시계가 걸려 있었다.

시계는 아득한 시간 저 편, 영욕이 부침하는 수백년의 세월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마치 아무 것도 모른다는 듯 침묵으로 일관하며 제 얼굴만을 매만지고 있었다. 시계탑 아래 광장에는 몇대의 마차가 서 있다가 관광객을 태웠다. 그리고는 광장을 한 바퀴씩 돌곤 했는데 내겐 그 마차가 폴란드의 역사 속으로 통하는 문처럼 느껴졌다.

마차를 타는 순간 그들은 시계탑 속의 시간을 통과하여 역사 저쪽에 있는 폴란드의 전신인 야젤로 왕조와 만날 것이다.

한때 유럽 최대의 왕국으로 부상하였다가 계속되는 전쟁으로 쇠퇴한 나라, 폴란드 전 영토의 분할승인 문서에 굴욕적인 조인을 하고 페테르스부르크에서 쓸쓸히 임종한 포니아토프스키 왕도 만날 것이고 베르사이유 협정으로 독립을 이룬 시민들의 환호와도 만날 것이다.

또, 그후 다시 폴란드를 침공한 독일군의 잔혹성과도 만날 것이고, 소련군과 함께 진주한 공산주의와도 만날 것이다. 그리고는 다시 여기, 공산당이 몰락하고 바웬사 대통령이 등장하는 일천구백구십년대의 폴란드로 되돌아 올 것이다.

그러나 상기된 얼굴로 마차에서 내리는 관광객의 표정은 방금 마차가 지나온 땅의 역사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듯했다.

스케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어디에선

가 얼굴에 이상한 분장을 한 젊은 남자가 광장에 등장했다. 맨발의 그는 넓은광장을 중형무진하며, 엉덩이를 쭉 내밀고 광장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흉내내기도 하고 이상스런 몸짓으로 춤을 추기도 했다. 넥타이를 매고 지팡이를 든 점잖은 신사, 생기발랄한 아가씨, 아이의 손을 잡고 가는 젊은 아주머니, 중년부인 등 할 것 없이 아무에게나 다가가 함께 춤을 추자고 도 했다.

때마침 수도원의 작은 쪽문이 열리며 희색 옷을 입은 수녀들이 몇명 나왔다. 그 남자는 갑자기 수녀들에게 뛰어가 함께 놀자는 시늉을 해 보였다. 수녀들은 소녀처럼 웃으며 거절을 했다. 이번에는 검은 신부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젊은 신부가 지나갔다. 그 남자는 또 신부에게도 뛰어갔다. 신부 역시 거절을 했으나 옷자락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하는 수 없다는 듯 신부는 그와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다. 동작을 나란히 하여 질독거리는 걸음걸이도 흉내냈다. 광장 주변에 앉아 있던 사람중에 누군가가 박수를 쳤다. 거기에 사람들이 하나 둘 동조를 하는가 싶더니 어느사이 모두들 손뼉을 치며 박자를 맞추었다. 수녀들도 웃으며 손뼉을 쳤다. 삼시간에 광장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메워졌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이 도시의 생명력을 깨달았다. 전쟁과 속박과 파괴 속에서도 곳곳이 살아남는 잡초와 같은 생명력, 그들의 경쾌하고 싱그러운 웃음소리는 그 도시가 안고 있는 모든 걱정

과 근심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듯했다. 물가가 높아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하고 그것도 모자라 퇴근 후엔 또다른 아르바이트 일거리를 찾아 헤맨다는 폴란드의 고달픈 현실이 비로소 비극적이거나 암담해 보이지만은 않게 느껴졌다.

저녁을 먹고 바르샤바 시내의 야경을 구경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늦은 시간이었는지 엘리베이터 근처에는 사람이 없었다. 나무로 만든 낮은 엘리베이터는 움직일 때마다 시골 달구지처럼 덜컹거렸다. 또 엘리베이터에는 유리창이 달려 있어 각층의



▲바르샤바 숙소인 MDM호텔에서 내려다 본 아침풍경.

“

시계탑 아래 광장에는 몇대의 마차가 서있다가
관광객을 태웠다. 그리고는 광장을 한바퀴씩 돌곤
했는데, 내겐 그 마차가 폴란드의 역사 속으로
몰리는 문처럼 느껴졌다.

”

풍경이 서로 비교되어 한눈에 들어왔다.

엘리베이터를 내려서면 응접실처럼 넓은 공간에 쇼파와 커다란 화분이 여러개 놓여있어 분위기가 아늑해 보였고 길게 이어진 복도 양편으로 각각의 방이 있는 것이 층마다 비슷했다. 선숙이와 내가 묵고 있는 방은 칠층인가 팔층쯤의 오른쪽 복도 끝부분에 일행과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우리는 항상 층수를 혼동하여 그 윗층이나 아랫층에서 내리곤 했다.

그 날도 용케 층수를 찾아 엘리베이터를 내렸는데 때마침 맞은 편 복도 쪽에서 두 남자가 걸어 나왔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보아 러시아인인 듯했다. 황소처럼 배가 볼록 튀어나온 뚱뚱한 몸매에 가슴과 얼굴이 온통 수염투성이인 그들은 아무 것도 걸치지 않은 얇은 펜티차림이었다.

그들은 우리를 보자 무어라 손짓을 하며 느릿느릿 다가왔다. 주변을 휘이 둘러 보았다. 어두컴컴한 양쪽에는 그들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순간 알 수 없는 두려움 같은 것이 뇌리를 스쳤다. 나쁜 사람들일까? 혹 납치라도 하려는건 아닐까?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덩치 큰 그

들을 힘으로 밀어 부칠 수는 없고 설득을 해야되는데 뭐라고 설득을 하지? 그래도 안되면? 사람들이 모이도록 소리를 지를까? “악”-! 이라고 지를까? “억!”- 이라고 지를까?

태연을 가장하며 침착하게 걸었으나 짧은 순간에도 생각은 만가지로 겹쳤다. 그들과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자 겁이 난 선숙이는 빨리 문을 열어야 한다고 발을 동동 굴렀다. 손에 땀이 났다. 그날따라 열쇠가 잘 맞지 않았다. 내가 방문을 연 것과 그들이 우리 등 뒤에 다가선 건 거의 같은 시간이었다.

그들이 무어라고 지껄이며 어깨를 잡으려 하자 무슨 말인지 헤아릴 겨를도 없이 “NO”를 외치며 방으로 뛰어 들었다. 그리고는 급히 문을 잠겼다. 몇번인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잠잠해졌다. 비로소 긴장된 얼굴이 풀리며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고 까르르 웃었다. 그리고는 선숙이가 한마디했다.

“언니, 우리 하마터면 행복할뻔 했어요.” ㉞

〈필자=화가·호는 창랑(滄浪)〉